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도심 BRT 주목

정부협이서 '재검토' 불투명 백운광장~건국동 연계 검토 강 시장 "경제성 등 두루 고려"

사업비 부족과 타당성 논란으로 개통이 불투명했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에 도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연계방안 등이 적극 검토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4일 도시철

도 2호선 3단계 개통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묻는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의 시정질문에 "3단계는 1, 2단계 개통 후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정부(기획재정부) 의견대로 2030년께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며 "현실적 대안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우선 지난 2020년 8월부터 추진중인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일시 정지하고, 3단계 구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은 2014년 개정된 도시철도법을 근거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중장기 건설계획, 확정된 구간 외에 지선이나 연장선 등이 필요하지 여부와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2020년 8월 용역을 발주, 오는 2024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3억4,0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입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2021년 6월에 일시정지된 바 있고, 이번엔 2호선 3단계 타당성 분석 등을 위해 또 다시 중지됐다.

광주시는 특히 3단계 백운광장~진

월~효천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 계획에 이미 반영된 남구 백운광장~북구 건국동 광주희망병원 구간(10.3km, 2026~2030년, 총사업비 361억원)의 도심BRT 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강 시장은 "교통인프라 도입은 기술 검토, 이용 수요 등 경제성 검토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사업가 능력과 경제성, 재정 상황 등 3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단계 구간에 최적의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2호선 3단계 백운광장에서 효천역까지 구간의 개통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접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총길이 41.9km로, 총 3단계로 나눠서 정거장 44곳, 차량기지 1곳, 주차기지 1곳이 건설되며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 도입되는 최초의 순환선이다.

1단계(시정-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

~조선대-광주역, 17.06km) 구간 공정은 51.5% 수준으로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2단계(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수원지구-운남지구-시정, 20km)는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에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을 잇는 3단계(4.84km) 구간은 정부와의 사업비 조정 협상 결과 '2호선 개통 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결론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했다. /김용현 기자



사랑의 카네이션

광주시 동구 학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종진)가 지난 6일 5월 가정의 달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1인 가구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전달할 사랑의 카네이션 1송이와 찰밥과 김치를 포장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광주~영암 '한국판 아우토티반' 추진위 출범

윤 대통령 호남 대표공약 조기개통 서명운동 전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지역공약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광주·전남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한상원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전진우 목포대 총동문회장을 공동 추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는 지난 4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출범식에서 "전남 서남부 권의 획기적인 교통망 개선과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며 "조기 착공을 위한 추

진위를 결성해 시민의 숙원 사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시민캠페인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속도 제한이 없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현재 1시간 20분 소요되는 광주~영암 간 이동시간이 2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영암은 물론 목포, 무안, 해남, 진도 등 주변 지자체들의 교통 편의성이 증진되고, 광주와 전남 서남부 지역 간 실질적인 생활권 통합으로 소통과 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원 공동위원장은 "초고속도로 건설이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 인프라 역할은 물론이고 지역의 경기부양 효과와 최첨단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전시·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자율차 시대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2023년 초고속도로 설계 용역비 확보 ▲2024년 예비타당성 통과 ▲2025년 관련 예산 반영 ▲2026년 고속도로 공사 착공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서명운동, 세미나 개최, 청원서 제출, 홍보물 제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여론화에 나설 계획이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지난 2022년 2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광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국제자동차경기장을 갖춘 영암 간 47km 구간에 독일의 자동차 전용도로인 아우토티반과 같은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후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대표적인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정근산 기자

전국체전 등 자원봉사자 3천명 모집

도, 내달 23일까지 접수

전남도가 ' 으뜸전남 자원봉사! 함께 날자 감동체전'이라는 주제로 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뒷받침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전국체전 2,000명·장애인체전 1,000명 등 총 3,000명으로 8일부터 6월 23일까지 47일간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jin1365.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18세(2005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로 개인 또는 5인 이상 단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 가능한 기간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한다.

현장 배치 자원봉사자는 종합상황실을 추가 점용한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중앙로 공사 중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사구간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광주교통방송

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만 18세(2005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이상 광주·전남지역 거주자로 개인 또는 5인 이상 단체면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 참여 가능한 기간이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며, 선발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의 역할과 자세 등 기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한다.

현장 배치 자원봉사자는 종합상황실

지원, 경기 운영 지원, 경기장 안내, 홍보 지원, 개·폐회식 지원, 의료 지원, 장애 보조, 도핑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에겐 자원봉사 시간 인정, 단체복, 기념품, 활동실비(1일 1만7,000원),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 3일부터 8일까지 목포시와 전남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된다. /정근산 기자

'지하철 공사' 광주시의회 앞 2개 차로 축소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따라 5일부터 시의회 앞 추가 점용으로 인해 편도 1개 차로씩 2개 차로가 축소된다고 7일 밝혔다.

차로 축소는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 가시선 설치 작업에 따라 추진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잔여구간 가시선 공사를 위해 6월 말까지 차로

를 추가 점용한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상무중앙로 공사 중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 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차량유도 안내표지판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사구간과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광주교통방송

을 통해 사전예고를 실시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한다.

김재식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상무중앙로 구간의 차로가 축소되면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 출퇴근 시간에는 우회도로를 이용하고 변경된 차로 표시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시, 오늘부터 환경오염 사업장 단속

광주시는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주거지역, 산단, 농공단지 등과 가까운 오염물질 취급사업장 등으로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단속 내용은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운영 여부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에 검찰에 송치하고, 경미한 내용은 광주시 관련 부서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환경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기철 기자

www.goldclass.co.kr

다. 현재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려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의 의 : 062) 233-3999